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석애란(石愛蘭)**

김영근(金泳根)***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이 성인기의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경쟁모형과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곤란이 영향을 미친다는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인관계에서 보이는 문제는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의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간접적인 경험으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충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상담 장면에서 대인관계문제를 야기하는 정서적 학대경험에 대해 이해하고 내담자 스스로가 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함으로써 대인관계문제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아동기 정서적 학대, 대인관계문제,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곤란, 이중매개효과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요약 및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졸업.

*** 제2저자, 교신저자,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조교수, ykkim@inje.ac.kr

I. 서론

인간은 출생 이후 부모나 주 양육자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돌봄을 받으며 성장한다.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돌봄은 개인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정서기반에 중요한 요소이자 지속적으로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런 관점에서 아동기 양육자로부터의 정서적 학대경험은 부모-자녀 관계형성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성인기 대인관계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고성혜(1992)는 정서적 학대에 대한 정의를 영역별로 구분하였다. 첫째, 자녀에게 모욕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멸적, 거부적, 적대적, 위협적, 원망적 언어학대 영역, 둘째, 폭력이 아니더라도 자녀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 행동 영역, 셋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언사를 하는 부모의 감정적 태도 영역, 넷째, 이상의 결과들로 인해 아동이 받게 되는 심리적 상처 영역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정서적 학대는 학대 이후 삶의 과정에서 중요한 타인과의 친밀감을 형성, 발달시키는데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큰 요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에게 있어 부모와의 관계는 최초의 대인관계라 할 수 있으며, 일생동안 직면하게 될 여러 대인관계문제를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적응하는 방법을 배운다. 부모-자녀의 관계는 개인이 일생동안 경험하는 대인관계의 표상이며, 또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는 필수적인 요건이라 하였다(Egeland, Carlson, & Sroufe, 1993). 이혜진(2000)은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대인관계문제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심리적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성인기의 친밀한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영역이 높고 지지영역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박은미, 1999), 최윤라(1988)는 학대로 인해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감정이입능력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대인관계문제는 두 사람 이상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에서 대인관계 기술의 미숙함과 부정적인 정서반응들로 인해 만족스럽게 형성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최임정, 심혜숙, 2010),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박경애, 이재규, 권해수, 1998).

실제 대인관계문제는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핵심 문제 중 하나이다.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세 가지 요인은 서로 상호적 영향을 미치며 대인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선행연구(류진혜, 2002)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아동기 당시의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과 정서적 학대경험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많이 치중되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아동기뿐만 아니라 이후 발달과정에서 보이는 학대의 장기적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학대를 받은 경험으로 인해 아동이 성장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가 개인의 성인기 발달에 어떤 악영향을 주며 나아가 사회적 적응에 핵심요소인 대인관계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정서적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자아개념을 지니고 있으며(김아다미, 2001; 김양미, 2000), 우울, 분노, 불안과 같은 정서 문제(김혜련, 1994; Mullen et al, 1996)에도 관련이 있다. Linehan(1993)이 제시한 정서무시환경(invalidating environment)의 개념을 살펴보면, 정서무시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은 자신의 반응과 경험이 무시되고 부인되는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자신의 반응에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부정적 정서가 유기체의 적응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Greenberg & Paivio, 2003). 이런 이유로 정서적 학대가 정서인식명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적 학대경험이 정서 인식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학대 받은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교류가 적고 그 결과 정서를 인식하는 과정이 적절히 학습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Cicchetti & Beeghly, 1987). 이것은 정서적 학대경험과 정서 인식의 어려움 간에 관련성을 지지하는 중요한 근거로 볼 수 있다. Bradbury와 Shaffer(2012)의 연구에서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정서인식의 결함이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아동기에 정서적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urns, Jackson과 Harding(2010)의 연구에서는 세 가지 학대 유형(정서적, 신체적, 성적) 중 정서적 학대만 정서인식명확성의 결여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측면에서는 정서적 학대 상황 속에서 부모가 보이는 무관심하고, 거부적이며 위협적인 양육 태도와 연관하여 정서 인식 능력이 결핍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정서인식명확성은 자신의 정서를 스스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말한다(Swinkels & Giuliano, 1995).

Salovey등(1995)은 정서인식은 자기 내부의 정서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능력이며,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할수록 정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할 것이라 주장하였고, 연구 결과 평상시에 자신의 느낌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한다는 응답을 한 사람들이 유도된 부정적 정서에서 보다 빨리 회복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Auszra, Greenberg와 Herrmann(2013)의 표현에 의하면, 상담과정에서 정서를 활성화시키고 명확한 정서인식을 체험시키며 표현하게 하는 것이 치료적 전략으로써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정서적 측면으로 정서조절곤란이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발달심리학관점에서는 정서조절을 아동 초기의 기본적 과업의 하나로 여기며 정서조절이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Thompson, 1994). 이러한 정서조절의 과정은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고(이서정, 2005) 이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정서의 내용과 강도를 정확하게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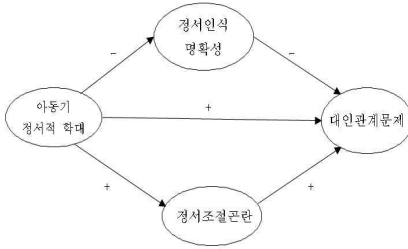
할 때 적절한 반응과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양유진, 2008). 개인의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정서인 불안이나 우울 등의 정서를 쉽게 회복할 수 있으며, 만족감이나 유능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다(이수정, 최요원, 2004). 또한 자신의 정서를 잘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더 잘 표현할 수 있기에(박진아, 이경숙, 신의진, 2008)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조절능력이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서성이 높고 정서조절 능력이 낮은 아동은 내재화된 문제행동과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보이며, 정서조절 능력의 부족은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 동시에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다(Eisenberg et al., 1999).

한 인간이 일평생 살면서 상대방과 진실한 관계를 맺기까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권진희, 2007). 즉,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과 교류해야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정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타인의 기분을 알아차리는 것과 연결되어 대인관계상에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정서 주의력이 너무 낮을 경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신지옥, 2006)고 했다. 반대로 정서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한 경우 에너지의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 명료화 과정이나 조절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결과적으로 부적응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정서에 대한 이해, 자각, 조절, 통제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은 원활한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대인관계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결국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은 정서발달에 제한을 주며 정서인식의 어려움과 부정적 정서조절로 인한 대인관계문제에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된다. 이에 상담현장에서는 내담자의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에 대한 자신의 정서를 인지하고 수용하며 자신의 정서를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현재의 대인관계문제를 다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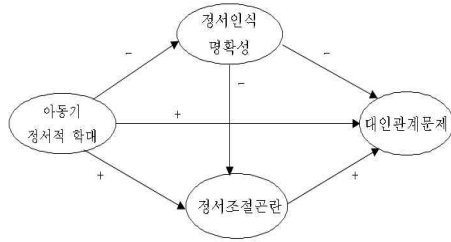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곤란이 어떤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림 1] 경쟁모형



[그림 2] 연구모형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경상남도 C시 및 G시에 위치한 3개 대학교 및 대학원생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와 설명문을 제공하여 이를 읽고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총 400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미 기재된 설문지 25부를 제외한 375부의 설문지만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 설문지는 동의서와 설명문과 함께 나이와 성별의 인적사항 기재란, 아동기의상척도, 대인관계문제척도, 특질상위기분척도 중 정서인식명확성척도와 정서조절곤란척도의 질문지로 구성되었다. 설문작성 응답시간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대상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명(%)
성별	남	73(19.5%)
	여	302(80.5%)
연령	20-29세	68(18.1%)
	30-39세	78(20.8%)
	40-49세	161(42.9%)
	50세 이상	68(18.1%)
합계		375(100%)

2. 측정도구

1) 정서적 학대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Bernstein과 Fink(1998)가 개발한 아동기 외상질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를 국내에서 이유경(2006)이 번안 및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정서적 학대경험을 측정 할 수 있는 변인으로 정서적 학대 및 정서적 방임에 관한 10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정서적 학대 문항은 “나에게 ‘너 같은 애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정서적 방임 문항은 “가족 안에서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모두 역채점 하도록 되어 있다.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6이고, 하위 영역별 내적 합치도는 .78, .93으로 나타났다.

2)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와 Villasenor(1988)가 개발한 대인관계문제검사(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IIP)를 홍상황 등(2002)이 단축하여 구성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단축형(Short form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 KIIP-CS)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형척도의 요인구조의 방식으로 인접한 네 개의 하위척도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을 측정 변수로 구성하였다.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87이고, 하위영역별 내적 합치도는 .80 ~ .87로 나타났다.

3)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인식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 Mayer, Goldman, Turvey와 Palfai(1995)가 개발하고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특질상위기분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를 사용하였다. 타당화 연구(이수정, 이훈구, 1997)에서 주요 요인구조로 확인된 하위변인은 정서에 대한 주의(5문항), 정서개선에 대한 기대(5문항), 정서인식명확성(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명확성을 측정하는 11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기 위해 요인부하량이 큰 순서대로 나열한 후 지그재그형식으로 문항묶음을 실시하였다. Bagozzi와 Edwares(1998)에 따르면, 몇 개 문항들의

합이 측정변인이 되므로 신뢰도가 높아지고, 개별문항을 사용할 때 보다 측정변인이 정상분포를 따를 가능성이 커지며, 측정변인의 수가 줄어들어 따라 추정해야 하는 미지수(parameter)가 줄어들어 전체 모형의 적합도가 좋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제작된 문항 묶음을 각 잠재변인의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으며, 두 개의 하위차원(정서명확성 1, 정서명확성 2)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정서인식명확성 문항은 '나는 대부분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안다.', '나는 보통 내 느낌들에 대해 매우 명확하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항과 '나는 늘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혼란스럽다' 등의 내용으로 역채점 된 문항들을 각각 문항묶음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3으로 나타났다.

4) 정서조절곤란

정서조절곤란 측정을 위하여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한 정서조절곤란척도(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 DERS)를 조용래(2007)가 번안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한국판 정서조절곤란척도(K-DERS)를 사용하였다. K-DERS는 정서조절곤란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측정하기 위하여 정서반응의 비수용, 목표지향 행동의 어려움, 충동조절의 어려움, 정서인식 부족,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제한된 접근, 정서표현의 명확성 부족의 총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명확성 척도의 하위요인과 정서인식부족 및 정서표현의 명확성 부족 하위요인 등이 서로 유사한 개념으로 중복 측정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홍주현, 심은정, 2013)를 바탕으로,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충동통제곤란',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제한', '목표지향행동의 어려움' 등의 4가지 요인만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83이었으며, 4개 하위요인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80 ~ .87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상관 및 기술통계를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곤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AMOS 20.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제안모델의 평가전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보다 단일차원성검증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Gerbing & Anderson, 1988). 각 개념들의 통계적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의 유의성과 요인부하량을 통해 집중타당성을 검증하였고, 비제약 모형과 제약모형 간 χ^2 의 차이를 분석, 판별 타당성을 검증했으며,

모형을 채택하기 위한 일반적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절대적합도 지수에서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d of Fit Index)는 0.9이상, 증분적합지수인IFI(Incremental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CFI)는 0.9이상, 원소간근접오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는 0.1 이하를 보고 있다.(홍세희, 2000).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 간 효과에 대한 유의미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 자료인 아동기 정서적 학대, 대인관계문제,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곤란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측정변인의 가정의 충족여부를 위해 표본 수와 정규성을 검토하고자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정규분포의 기준(왜도 < 2, 첨도 < 7)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성 가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는데(Curran, West, & Frinch, 1996), 본 연구에서의 연구변인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검증하기 위해 측정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값을 살펴본 결과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아동기정서적학대	1.70	.63	.02	.90
정서 인식 명확성	3.38	.76	-.24	.46
정서 조절 곤란	2.13	.64	.20	.53
대인 관계 문제	2.09	.64	.17	.54

2. 연구변인들의 상관분석

아동기 정서적 학대,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곤란, 대인관계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정서인식명확성은 대인관계문제($r = -.200, p < .01$), 정서조절곤란($r = -.277, p < .01$)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는 대인관계문제($r = .467, p < .01$), 정서조절곤란($r = .421, p < .01$)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정서인식명확성($r = -.123, p < .05$)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정서조절곤란과 대인관계문제($r = .451, p < .01$)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념신뢰도 값을 이용하였다. 개념신뢰도 값의 기준은 .7 이상 이 되면 집중타당도는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Hair et al., 1998). 먼저, 아동기 정서적 학대의 개념신뢰도 값은 .728로 기준값인 .7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서인식명확성은 .857, 정서조절곤란 은 .919, 대인관계문제는 .939로 역시 조건을 만족하는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모든 변수들은 집 중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분산추출값을 이용하였다. AVE값을 가지고 판별타 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변수 간 모든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AVE값보다 낮으면 판별타당도는 확보되었다고 본다(Fornell & Larker, 1981). 아동기 정서적 학대의 AVE값은 .573, 정서인식명확 성은 .762, 정서조절곤란은 .742, 대인관계문제는 .797의 수치를 보였다. 계산결과 모든 변수들이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값인 .218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나 판 별타당도 역시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3> 주요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1	2	3	4
1. 아동기 정서적 학대	-			
2. 정서인식명확성	-.123*	-		
3. 정서조절곤란	.421**	-.277**	-	
4. 대인관계문제	.467**	-.200**	.451**	-
구성개념신뢰도	.728	.857	.919	.939
AVE값	.573	.762	.742	.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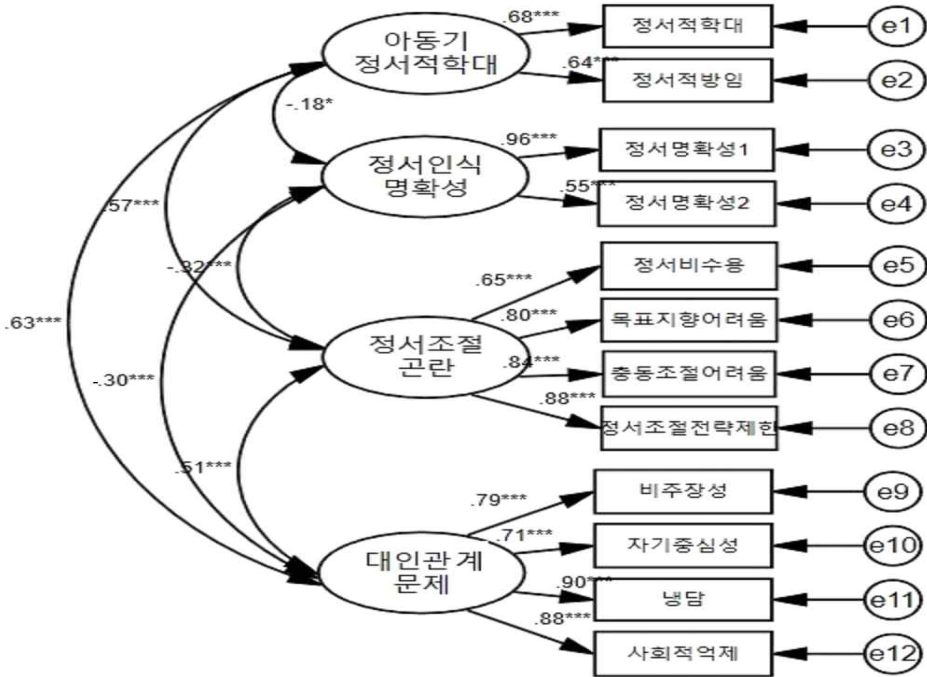
* $p < .05$, ** $p < .01$

3.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곤란, 대인관계문제를 측정하는 변인들이 각 변인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그림 3]과 같은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각 개념들의 통계적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절대적합도 지수인 χ^2 , GFI, AGIF, CFI, TLI, RMSEA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χ^2 (카이제곱)을 df (자유도)로 나눈 값이 3이하, GFI는 .9이상, RMSEA는 .08이하이면 적합하다 할 수 있고, 증분적합지수인 IFI, TLI, CFI는 .9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우종필, 2012). 측정모형의 검증 결과 (χ^2/df)

= 2.940로 나타났고, GFI = .939, AGIF = .901, TLI = .930, CFI = .957, RMSEA = .072로 적합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경로계수는 <표 4>와 같다. 측정항목들과 개념간의 비표준화 요인부하 값은, Bollen(1989)이 제안한 것과 같이 잠재변수와 측정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모수추정치가 모두 0보다 큰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추정치에 대한 C.R.값 역시 모두 2를 초과하고 있다. 표준화된 요인적재치의 경우에도 모든 변수에서 0.5 이상의 매우 적합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즉, 아동기 정서적 학대를 측정하는 하위요인인 정서적학대(.676), 정서적방임(.642)과, 정서인식명확성을 측정하는 하위요인인 정서명확성 1(.997), 정서명확성 2(.549), 정서조절곤란을 측정하는 하위요인인 정서비수용(.649), 충동조절어려움(.837), 목표지향어려움(.796), 정서조절전략제한(.879)과 대인관계문제를 측정하는 하위요인인 비주장성(.787), 자기중심성(.708), 냉담(.904), 사회적억제(.877)의 모든 경로계수와 C.R.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으므로 하위변인은 각 잠재변인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확인적 요인분석

<표 4> 확인적 요인분석의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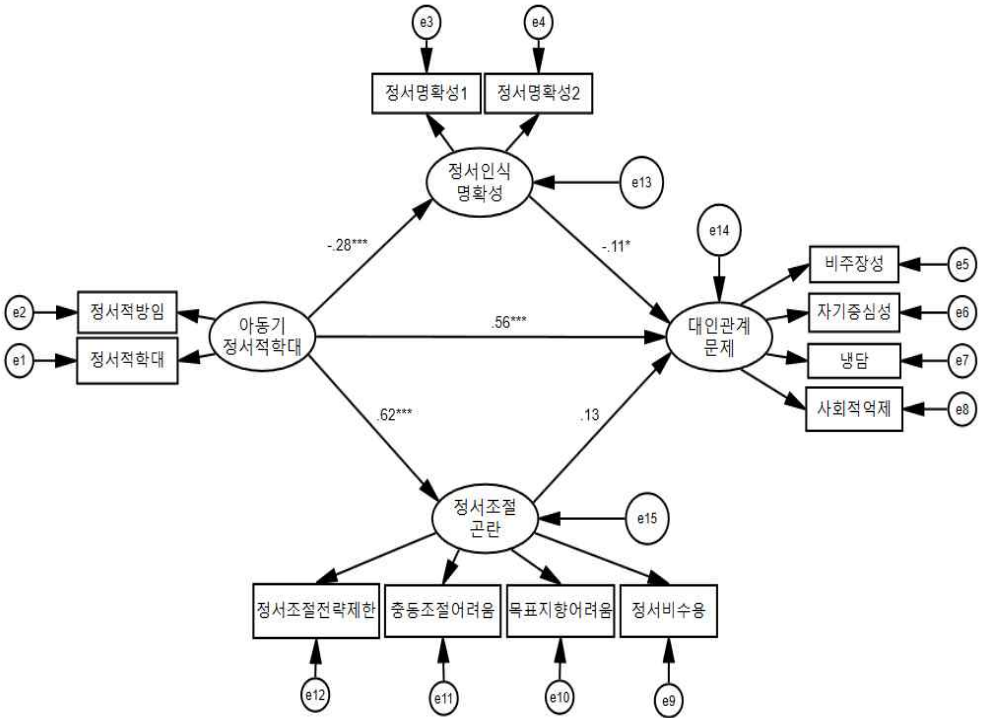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계수	S.E	표준화계수	C.R
아동기정서적학대	정서적학대	1		.68	
	정서적방입	1.36	.17	.64	8.06***
정서인식명확성	정서명확성1	1		.96	
	정서명확성2	.50	.11	.55	4.39***
정서조절곤란	정서 비수용	1		.65	
	목표지향어려움	1.24	.10	.80	12.88***
	충동조절어려움	1.18	.09	.84	13.36***
	정서조절전략제한	1.13	.08	.88	13.75***
대인관계문제	비주장성	1		.79	
	자기중심성	.65	.05	.71	14.41***
	냉담	1.02	.05	.90	19.39***
	사회적억제	.96	.05	.88	18.79***

*** $p < .001$

4. 구조적 관계분석을 통한 경쟁모형 검증

아동기 정서적 학대,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곤란, 대인관계문제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그림 4]와 같이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만족하였고, 최대 우도 추정법(ML; 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여 모형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chi^2/df = 3.126$, $p = .000$, GFI = .934, AGIF = .897, TLI = .936, CFI = .951, RMSEA = .075)의 수치와 같은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 경쟁모형은 총 5개 인과관계 가설로 구성되어 있고, 분석결과 <표 5>와 같이 4개의 인과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정서인식명확성에 미치는 경로 계수값은 $-4.151(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높으면 정서인식명확성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서인식명확성이 대인관계문제에 $-2.104(p < .01)$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으면 대인관계문제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서조절곤란은 대인관계문제에 $1.525(p >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정서조절곤란에도 $6.550(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높아지면 정서조절곤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서조절곤란이 높아져도 대인관계문제가 높아지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정서적 학대는 대인관계문제에 $4.699(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 아동기 정서적 학대는 대인관계문제를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쟁모형의

효과분석은 <표 6>과 같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에서 대인관계문제 간의 간접효과의 경로계수값은 .111($p > .05$)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간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학대에서 대인관계문제 간의 총효과의 경로계수값은 .667($p < .01$)로 나타났다.



[그림 4] 경쟁모형 검증

<표 5> 경쟁모형의 경로계수

경로(가설)		비표준화계수	S.E.	표준화된계수	C.R.
아동기 정서적 학대	→ 정서인식명확성	-.67	.16	-.28	-4.151***
	→ 정서 조절 곤란	.85	.13	.62	6.550***
	→ 대인 관계 문제	.98	.21	.56	4.699***
정서인식명확성	→ 대인 관계 문제	-.08	.04	-.11	-2.104*
정서조절곤란	→ 대인 관계 문제	.17	.11	.13	1.525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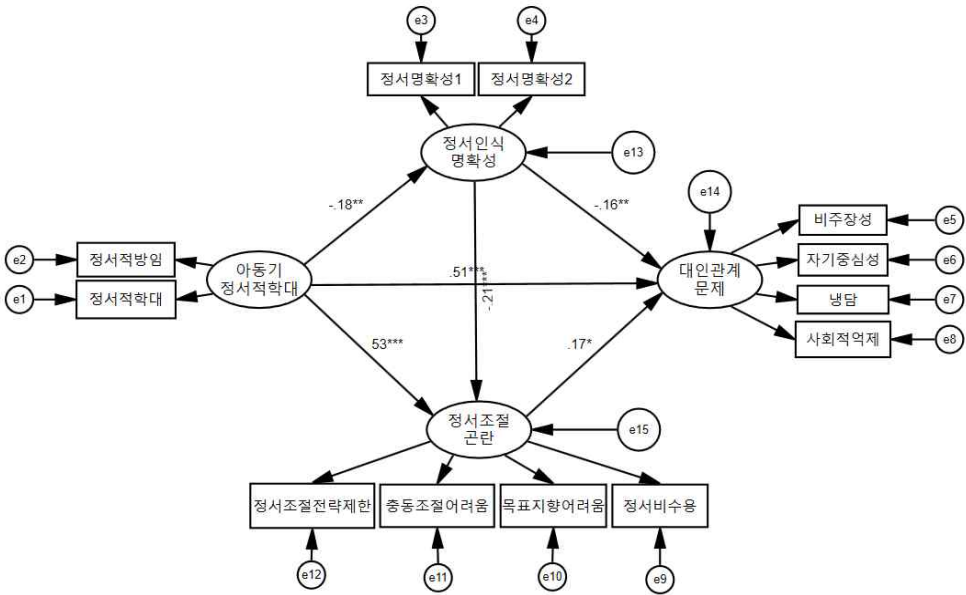
<표 6> 경쟁모형의 효과분석

	경로(가설)	직접효과(p)	간접효과(p)	총효과(p)
아동기 정서적 확대	정서인식명확성	-.278(.013)		-.278(.013)
	→ 정서조절곤란	.621(.012)		.621(.012)
	대인관계문제	.556(.016)	.111(.140)	.667(.021)
정서인식명확성	→ 대인관계문제	-.106(.060)		-.106(.060)
정서조절곤란	→ 대인관계문제	.131(.310)		.131(.310)

5. 구조적 관계분석을 통한 연구모형 검증

아동기 정서적 확대,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곤란, 대인관계문제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5]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경쟁모형의 유의하지 않는 경로를 포함한 검증결과에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아동기 정서적 확대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와 아동기 정서적 확대가 정서인식명확성 또는 정서조절곤란을 통하여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그리고 정서인식명확성이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포함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chi^2/df = 2.882$, $p = .000$, GFI = .939, AGIF = .903, TLI = .943, CFI = .958, RMSEA = .071)의 수치와 같은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 연구모델은 총 6개 인과관계 가설로 구성되어 있고, 분석결과 <표 7>에 나타난 것과 같이 6개의 인과관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동기 정서적 확대가 정서인식명확성에 미치는 경로계수 값은 $-2.598(p < .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확대가 높으면 정서인식명확성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기 정서적 확대가 정서조절곤란에도 $6.110(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동기 정서적 확대가 높으면 정서조절곤란 역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서인식명확성이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경로계수 값이 $-3.975(p < .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것은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으면 정서조절곤란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인식명확성이 대인관계문제에는 $-3.127(p < .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조절곤란도 대인관계문제에 $2.247(p <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으면 대인관계문제는 낮아지고, 정서조절곤란이 높으면 대인관계문제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정서적 확대는 대인관계문제에 $5.125(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모형의 효과분석은 <표 8>과 같다. 아동기 정서적 확대에서 정서조절곤란 간의 간접효과의 경로계수 값은 $.037(p <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경로간의 총효과의 경로계수 값은 .568($p < .01$)의 수치를 보였다. 또한, 정서인식명확성에서 대인관계문제 간의 간접효과의 경로계수 값은 -.036($p < .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경로 간의 총효과의 경로계수 값은 -.192($p < .01$)의 수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정서 학대에서 대인관계문제 간의 간접효과의 경로계수 값은 .125($p < .01$)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경로 간의 총효과의 경로계수 값은 .634($p < .05$)의 수치를 보였다.



[그림 5] 연구모형 검증

<표 7> 연구모형의 효과분석

경로(가설)	비표준화계수	S.E.	표준화된계수	C.R.
아동기 정서적 학대 → 정서인식명확성	-.29	.11	-.18	-2.599**
아동기 정서적 학대 → 정서조절곤란	.56	.09	.53	6.538***
아동기 정서적 학대 → 대인관계문제	.61	.12	.51	5.179***
정서인식명확성 → 정서조절곤란	-.14	.03	-.21	-4.080***
정서인식명확성 → 대인관계문제	-.11	.04	-.16	-3.127**
정서조절곤란 → 대인관계문제	.19	.09	.17	2.265*

* $p < .05$, ** $p < .01$, *** $p < .001$

<표 8> 연구모형의 효과분석

경로(가설)		직접효과(p)	간접효과(p)	총효과(p)
아동기 정서적 확대 →	정서인식명확성	-.176(.039)		-.176(.039)
	정서조절곤란	.531(.008)	.037(.016)	.568(.007)
	대인관계문제	.509(.010)	.125(.007)	.634(.019)
정서인식명확성 →	정서조절곤란	-.212(.005)		-.212(.005)
	대인관계문제	-.155(.007)	-.036(.020)	-.192(.003)
정서조절곤란 →	대인관계문제	.171(.029)		.171(.029)

6.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비교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중 더욱 우수한 설명력과 간명한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두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비교와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여 <표 9>의 결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이 경쟁모형과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적합도 지수를 보여 연구모형이 더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Bentler와 Bonett(1980)의 χ^2 차이검증을 통해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하였을 때에도 두 모형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자유도가 작은 연구모형이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자료를 설명한다고 간주하였다. 이에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고 추정된 경로 계수를 통해 본 연구에서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표 9>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χ^2	df	GFI	AGIF	TLI	CFI	RMSEA
경쟁모형	156.282	50	.934	.897	.936	.951	.075
연구모형	141.241	49	.939	.903	.943	.958	.071

7.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외생변수인 아동기 정서 확대와 내생변수인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개별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표 10>. 아동기 정서적 확대와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곤란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동기 정서적 확대는 정서인식명확성을 낮추고 이렇게 낮아진 정서인식명확성은 정서조절곤란을 높이며 대인관계문제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

<표 10>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LOWER	UPPER
아동기 정서적 학대→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곤란→ 대인관계문제	-.18*	.09	.19
아동기 정서적 학대→정서인식명확성→대인관계문제	-.29*	-.80	-.06
아동기 정서적 학대→정서조절곤란→대인관계문제	.13*	.08	.58

* $p < .05$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과 대인관계문제를 매개한다고 밝혀진 여러 선행연구들 중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의 영향력을 파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이 성인기의 대인관계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주요 결과 및 이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직접경로가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의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의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은 성장기에 유의미한 손상을 가하는 원인이며, 이 손상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도 이어진다(Hart, Nelson, Robinson, Olsen, & McNeilly-Choque, 1998)는 견해와 맥락을 같이한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에서 아동기에 겪은 부모의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사교성 및 개방성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이며(김완선, 1996), 학대로 인해 대인관계형성에 중요한 감정이입 능력이 감소(최윤라, 1988)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것은 정서적 학대경험이 성인기 대인관계문제를 예측한다고 보고한 Messman-Moore와 Coates(2007)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부모처럼 중요한 타인에 의해 만성적으로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다양한 문제를 두드러지게 보인다(Luxenberg et al., 2001)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은 성숙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성인기에 많은 대인관계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여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이 높을수록 정서인식명확성

은 부적 관계를 보이고 정서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낮을수록 정서조절곤란과도 정적관계를 보이며 더불어 정서조절곤란이 대인관계문제에 대해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무시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은 자신의 반응과 경험이 무시되고 부인되는 경험의 반복으로 인해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반응에도 신뢰하지 못한다(Linehan, 1993)는 이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할수록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서를 명확히 인식할수록 대인관계가 즐겁고 편하며 의사소통능력과 사교성이 높아진다(서은혜, 2005)는 선행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다. Lamoureux 등(2012)의 연구에서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PTSD와 우울과 같은 정서문제들이 취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양식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이지영, 2013)에서는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양식의 능동적 양식과 지지추구적 양식은 정적 상관, 회피 분산적 양식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여 공감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는 연구결과(Saarni, 2007)와 일치한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정서를 조절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며, 정서에 대한 부정적 반응성과 부적응적인 정서조절반응으로 정서조절곤란을 설명하고 있다. 자신의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진 내담자의 대인관계 양상과 자신의 정서에 대한 혼란과 불명확한 인식으로 인해 오는 정서조절곤란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는 것은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이 개개인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수준에 따라 정서조절의 양식이나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해결력을 가지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정서인식명확성이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측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도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이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곤란의 이중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구조모형의 경로를 통해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간접경로를 설정한 경쟁모형과 직·간접 경로를 설정한 연구모형을 비교해본 결과, 직·간접 경로의 연구모형이 최종모형으로 선택되었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이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곤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인식명확성이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과 정서조절곤란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곤란이 매개될 때 미치는 영향력의 의미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과 대인관계문제에서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 변인 간 관련성을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아동기에 경

협한 정서적 학대경험은 아동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 동안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쳐 성인기 대인관계에도 문제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Messman-Moore & Coates, 2007). 이런 결과에서 보듯이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와 관련된 정서를 경험할 때 이에 수반되는 부정적 정서가 각성되고 이를 느끼지 않기 위해 피함으로서 반복적인 대인관계 문제의 패턴에 어려움을 호소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상담현장에서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핵심 정서 경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버텨주는 환경(holding environment)을 제공(김창대, 2002; Fosha, 2000)하는 것은 중요하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고통스러움을 담아내주고(containing), 내담자가 이를 버티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온전히 수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Greenberg & Paivio, 2003), 정서의 주체(agency)가 바로 자신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 있다(김영근, 김창대, 2015).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과거 아동기 정서적 학대의 경험은 변화시키기 어렵지만 이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석하고 변화를 모색하여 적응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사회적 기능을 적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미혼, 기혼자와 아직 사회생활의 경험이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을 포함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 선정에 대학생 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시켜 기존의 연구에 비해 더 다양한 집단을 선정하여 진행함으로써 연구의 폭을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실제 상담 장면에서는 대인관계의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를 빈번히 만날 수 있으며 많은 내담자들은 대인관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인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대인관계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와 정서적인 차원의 개념이 포함되어있는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곤란의 변인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결과적으로 상담 장면에서 아동기 부모에 의한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내담자를 이해하고 이에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과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다양한 원인을 파악해보면, 그 원인 중 하나가 성장기 부모 혹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거부당하거나 무시되는 경험의 축적으로 인해 자신의 정서에 둔감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무시하게 된다. 이렇게 무시된 정서는 자신의 정서에 대한 반응보다 타인의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되거나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을 겪게 되는 점에서 볼 때, 상담 시 내담자가 타인이 아닌 자신의 관점으로 정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상담자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경험하고 체화함으로써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인의 위축되어 있는 감정과 인정받지 못한 정서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부정적 자기상과 정서조절곤란을 다루기 위한 적절한 개입으로 자신의 정서를 타당화 받는 교정적 정서 체험과 자신의 정서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대인관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데에 본 연구의 함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선 표집된 일반대상의 경험에 대한 대인관계문제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목적이었으나, 제한된 지역에서 자료 수집을 했다는 한계점과 40-50대에 편중된 연령층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의 확보가 어려워 일반화가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결과를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자료의 왜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곤란의 변인들 중 부정적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지 작성 시 자신을 방어하거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규범적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왜곡된 반응이 포함된 자료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진단을 위한 전문가의 면담이나 심각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의 개발과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측정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고 반응의 왜곡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과 대인관계문제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곤란을 설정하고 검증하지만 이 두 가지 매개변인 이외에도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이 관여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표현의 양가성이나 부정적 자동사고, 수치심등의 다양한 주요변인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성혜(1992).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 성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권진희(2007).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표현성 및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김아다미(2001). 아동의 학대경험이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양미(2000). 아동학대가 아동의 공격성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김영근, 김창대(2015). 상담과정에서 정서의 활성화 및 반복적 수용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고찰. **상담학연구**, 16(6), 1-23.
-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황, 박은영(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의 타당화: KIIP-C와 KIIP-PD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392-411.
- 김완선(1996). 부모의 정서적 학대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김창대(2002). 대상관계이론의 핵심개념.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2(1), 125-131.
- 김혜련, (1994).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류진혜(2002).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지도방안. **학생생활연구**, 9, 83-95.
- 박경애, 이재규, 권혜수(1998).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박은미(1999). 아동기 학대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인기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초기 성인기의 친밀한 대인관계의 질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박진아, 이경숙, 신의진(2008). 정서 및 행동장애 유아의 정신병리 유형에 따른 기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2), 523-545.
- 서은혜(2005). 초등학교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양식 및 사회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신지욱 (2006). 애착, 정서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양유진, 정경미(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회피적 정서조절과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매개요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3), 669-688.
- 우종필(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이서정(2005). 정서인식의 명확성, 인지적 정서조절 및 정신건강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이수정, 이훈구(1997). Trait Meta-Mood Scale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정서지능의 하위 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95-116.
- 이유경(2006). 여대생이 아동기 외상경험이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지영(2013). 정서인식명확성과 대인관계문제, 지각된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 이혜진(2000).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조용래(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판 척도의 심리 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1015-1038.
- 최윤라(1988). 학대받은 아동의 감정이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최임정, 심혜숙(2010).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79-492.
- 홍상환,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23-940.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주현, 심은정(2013).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195-212.
- Auszra, L., Greenberg, L. S., & Herrmann, I. (2013). Client emotional productivity: Optimal client in-session emotional processing in experiential therapy. *Psychotherapy Research*, 23(6), 732-746.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3), 588.
- Bernstein, D. P., & Fink, L. (1998).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 retrospective self-report manual*. San Antonio, TX: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 Bagozzi, R. P., & Edwards, J. R. (1998). A general approach for representing constructs in organizational research.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1), 45-87.
-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NY: John Wiley.
- Bradbury, L. L., & Shaffer, A. (2012). Emotion dysregulation mediates the link between

-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young adult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1(5), 497-515.
- Burns, E. E., Jackson, J. L., & Harding, H. G. (2010). Child maltreatment, emotion regulation, and posttraumatic stress: The impact of emotional abuse.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9(8), 801-819.
- Cicchetti, D., & Beeghly, M. (1987). Symbolic development in maltreated youngsters: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987(36), 47-68.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
- Egeland, B., Carlson, E., & Sroufe, L. A. (1993). Resilience as proces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4), 517-528.
-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Guthrie, I. K., Murphy, B. C., & Reiser, M. (1999).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Longitudinal relations to quality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2), 513-534.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9-50.
- Fosha, D. (2000). *The transforming power of affect: A model for accelerated change*. New York, NY: Basic Books.
- Gerbing, D. W., & Anderson, J. C. (1988). An updated paradigm for scale development incorporating unidimensionality and its assessmen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6-192.
-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1), 41-54.
- Greenberg, L. S., & Paivio, S. C. (2003). *Working with emotions in psychotherapy*. New York, NY: Guilford Press.
- Hair, J. F. Jr.,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en, S. F., & McNeilly-Choque, M. K. (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school-age children: Parenting

- style and marital linkag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687.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A. A., Ureno, G., & Villasenor, V.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85.
- Lamoureux, B. E., Palmieri, P. A., Jackson, A. P., & Hobfoll, S. E. (2012). Child sexual abuse and adulthood-interpersonal outcomes: Examining pathways for intervention.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4(6), 605.
- Linehan, M. (1993).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NY: Guilford press.
- Luxenberg, T., Spinazzola, J., & van der Kolk, B. A. (2001). Complex trauma and disorders of extreme stress (DESNOS) diagnosis, part one: Assessment. *Directions in Psychiatry*, 21(25), 373-392.
- Messman-Moore, T. L., & Coates, A. A. (2007). The impact of childhood psychological abuse on adult interpersonal conflict: The role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patterns of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Emotional Abuse*, 7(2), 75-92.
- Mullen, P. E., Martin, J. L., Anderson, J. C., Romans, S. E., & Herbison, G. P. (1996). The long-term impact of the physical, emotional, and sexual abuse of children: A community study. *Child Abuse & Neglect*, 20(1), 7-21.
- Saarni, C. (2007).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Pathways for helping children to become emotionally intelligent. *Educating People to be Emotionally Intelligent*, 16, 15-35.
-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Turvey, C., & Palfai, T.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In J. W. Pennebaker (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pp. 125-15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winkels, A., & Giuliano, T. A. (1995). The measurement and conceptualization of mood awareness: Monitoring and labeling one's mood sta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9), 934-949.
-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25-52.

* 논문접수 2018년 5월 4일 / 1차 심사 2018년 6월 15일 / 게재승인 2018년 6월 21일

* 석애란: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상담심리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E-mail: aemarin1215@naver.com

* 김영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상담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서심리와 상담, 치료적 관계, 집단상담, 상담의 과정 및 성과이다.

* E-mail: ykkim@inje.ac.kr

Abstract

The Effects of Childhood Emotional Abuse on Interpersonal Problems: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Perception Clarity and Emotional Dysregulation*

Seok, Aeran**

Kim, Youngkeun***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childhood emotional abuse on interpersonal problems in adulthood and then finding out whether emotional perception clarity and emotional dysregulation mediat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interpersonal problems in adulthood. To this end, competition model and research model were verifi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childhood emotional abuse had a direct effect on interpersonal problems. Besides, emotional perception clarity and emotional dysregulation dual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se results found that interpersonal problems are not only directly affected by the childhood emotional abuse but also indirectly affected by the experience of perceiving and regulating emotion. This satisfied the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help to understand the childhood emotional abuse which causes interpersonal problems in counseling, motivate clients to be able to control their emotions for themselves and make strategies which can reduce the figures of interpersonal problems. Lastl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ing studies have been discussed.

Key words: childhood emotional abuse, interpersonal problems, emotional perception clarity, emotional dysregulation, dual mediation effect

* This manuscript is a truncated recapitulat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 thesis.

** First author, Master of education majoring in counseling psychology,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je University

*** Second author,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nje University